

연승 분위기 탄 광주FC...여세 몰아 3연승 간다

K리그2 12일 안산 원정경기 헤이스 활약에 공격 힘 실려 전남은 13일 경남 상대 첫승 노려

광주FC가 상승세를 타고 안산에서 3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12일 오후 1시 30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안산그리너스와 하나원큐 K리그2 2022 4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올 시즌 3번째 경기다. 광주는 2월 19일 안방에서 김포FC를 상대로 시즌 개막전을 벌인 뒤 27일에는 대전하나시티즌과 2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그리고 3라운드 휴식팀이 돼 한 주 쉬었다.

앞서 두 경기 결과는 1승 1패. '신생팀' 김포에 1-2패를 기록했던 광주는 대전을 2-0으로 꺾으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그리고 지난 9일 열린 2022 FA컵 2라운드 포천시민구단과의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에 성공했다.

'초보 사령관' 이정호 감독의 축구가 점점 자리 잡아 가고 있고, 포천전에서 승리 말고도 연승 속이 많다.

로테이션을 통해 핵심 선수의 체력을 안배했고,

부상 복귀 선수와 새로 영입된 선수들은 실전 감각을 조율했다. 특히 부상 복귀 후 첫 풀타임을 소화한 김중우는 매서운 패스를 바탕으로 경기를 조율했고, 새 외국인 공격수 마이키는 하승운의 결승골에 기여했다.

리그 일정을 재개하는 광주는 분위기를 이어 초반부터 부지런히 승점을 쌓아가겠다는 각오다.

헤이스의 활약이 반갑다. 헤이스는 앞선 대전전에서 적극적인 압박과 드리블 그리고 통쾌한 슈팅으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2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또 공격수 이진희가 1라운드 경기에서 광주의 시즌 1호골을 장식한 데 이어 FA컵에서는 헤더로 하승운의 골을 도왔다.

'신인' 정호연이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이순민과의 호흡도 맞춰가고 있다. 여기에 박한빈, 안영규, 김현훈으로 이어지는 스리백도 견고하다.

안산은 선수진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끈끈한 조직력과 패기, 질식 수비로 상대를 괴롭히는 팀이다.

광주와의 상대 전적도 3승 2무 3패로 동률을 이루고 있다. 항상 치열했고 어려운 싸움을 벌였던 두 팀이다.

최근 분위기는 광주가 앞선다. 광주가 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안산은 리그와 FA컵을 포함해 올 시즌 4경기에서 아직 승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자신감을 더한 광주가 마음 급한 안산을 상대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드래곤즈는 13일 오후 1시 30분 밀양종합운동장에서 경남FC를 상대로 4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골침묵'을 깨는 게 전남의 시급한 과제다. 안양전 0-1패배로 시즌을 연 전남은 김포와의 홈개막전에서 0-2패를 기록하면서 출발이 좋지 않다. 앞선 충남아산전에서 시즌 첫 승점을 얻었지만 경기는 0-0 무승부였다.

올 시즌 화려 강화를 공을 들였지만 세 경기에서 아직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남은 경남전 자신감을 앞세워 득점과 승리를 동시에 노린다. 전남은 지난 시즌 경남을 상대로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승점 10점을 쟁겼다.

또 충남아산전에서 무승부에 그쳤지만 카차라바, 플라나, 발로텔리가 위력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기대감도 키웠다.

전남이 강세를 이어 경남을 시즌 첫 승 제물로 삼을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외국인 공격수 헤이스를 전면에 내세워 12일 안산 원정에서 3연승을 노린다. 사진은 지난 2라운드 대전전에서 골을 넣은 뒤 환호하는 헤이스. <광주FC 제공>

벤제마 헤트트릭...레알 마드리드 챔스리그 8강행

파리 생제르맹에 합계 3-1 맨체스터시티도 8강 합류

'스페인 거함' 레알 마드리드가 17분 사이에 세 골을 터뜨린 카림 벤제마의 활약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0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1-2022 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 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을 3-1로 물리쳤다.

1차전 원정에서 0-1로 패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1, 2차전 합계 점수 3-2를 기록해 8강 티켓의 주인 공이 됐다.

전반 39분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음바페의 선제골이 나왔을 때만 해도 파리 생제르맹이 8강 고지에 가까이 다가선 것처럼 보였다.

네이마르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뒷공간을 파고들며 오른발로 때린 슈팅이 레알 마드리드 골문을 열었다.

전반을 1-0으로 앞선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 9분 음바페가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와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음바페는 전반 34분에 이어 이날 두 번이나 골을 넣고도 오프사이드 판정에 고개를 숙였다.

2-0으로 달아날 기회를 파리 생제르맹이 놓치자 이후 홈팀 레알 마드리드의 반격이 시작됐다.

30분 안에 두 골을 넣어야 동률을 만들 수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16분 프랑스 국가대표 공격수 벤제마가 1-1, 1-2차전 합계 점수로는 1-2로 따라붙는 골을 터뜨렸다.

상대가 키플어에게 백 패스한 공을 벤제마가 경합하며 페널티 지역 안으로 흐르게 했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패스를 받은 벤제마가 직접 오른발로 차넣었다.

후반 31분에는 다시 벤제마가 한 골을 터뜨리며 경기 점수 2-1, 1-2차전 합계 점수 2-2를 만들었다. 루카 모드리치의 패스를 받은 벤제마가 오른발 강슁으로 다시 한번 파리 생제르맹 골문을 뚫었다.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손을 들며 오프사이드



10일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1-2022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가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골을 터뜨린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그대로 골로 인정됐다.

기세가 오른 벤제마는 후반 33분 페널티 지역 안으로 쇄도하다가 상대 수비가 견어내는 공을 마치 어시스트를 받듯이 그대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다.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리오넬 메시가 찬 회심의 프리킥이 골대 위

로 뜨며 끝내 1골 차로 8강행 티켓을 놓쳤다.

1차전에서 5-0 대승을 거둔 맨체스터시티(잉글랜드)도 이날 스포르팅 CP(포르투갈)와 0-0으로 비겨 1, 2차전 합계 1승 1무로 8강에 합류했다.

이로써 전남 8강행을 확정된 바이에른 뮌헨(독일), 리버풀(잉글랜드)에 이어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시티까지 8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중국 베이징 국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장애인아이스하키 4강 진출 결정 플레이오프 한국 대 이탈리아 경기에서 4-0 완승을 거둔 대표팀 선수들이 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골 1도움 장동신 역시 '이탈리아 킬러'

한국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4강행...내일 캐나다와 결승 길목 맞대결

"이탈리아 킬러? 인정합니다."

9일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장애인아이스하키 이탈리아전(4-0 승)에서 2골 1도움으로 4강행을 견인한 '검투사' 장동신(46·강원도청)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장동신은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휠체어펜싱 은메달리스트다.

장동신은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이탈리아와 동메달 결정전에서 짜릿한 결승골로 1-0 승리를 이끌며 한국 장애인아이스하키의 사상 첫 메달 획득에 기여한 선수다.

그는 4년 뒤 패럴림픽에서 다시 만난 이탈리아를 상대로도 어김없이 강한 면모를 보였다.

'이탈리아 킬러'에게 첫 골은 3분 30초면 충분했다. 골대 정면에서 날린 기습 중거리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다.

장동신은 2피리어드에선 깔끔한 킥패스로 정승환의 추가 골을 도왔고, 3-0으로 앞서던 3피리어드엔 베데랑의 기지를 발휘해 셋째 골을 터뜨렸다.

그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평창 결승골 이전에 이탈리아만 만나면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

겼다. 경기 전 동료들이 '오늘 또...' 했었는데, 이탈리아 킬러? 이제 나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4강에 진출한 한국은 11일 오후 1시 5분(한국 시간) A조 2위 캐나다와 결승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

캐나다와의 준결승서도 골을 기대한다는 말에 장동신은 "저는 디펜스(수비) 20번 장동신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골 넣는 수비수도 좋지만, 수비수는 무조건 무실점이 우선이다. 캐나다전 내 목표는 무실점이다. 그래야 우리 팀이 한 골만 넣어도 이긴다"고 힘줘 말했다.

캐나다는 2006년 토리노 대회 금메달, 2014년 소치 대회 동메달, 2018년 평창 대회 은메달을 따낸 '세계 2위' 강호다. 앞서 A조 조별리그에서 한국은 캐나다에 0-6으로 패했고, 4년 전 평창 준결승에선 0-8로 졌다. 역대 전적은 35전 35패다.

하지만 4번째 패럴림픽 무대에서 다시 준결승 진출에 나선 '베데랑' 장동신은 "강팀 캐나다를 만날 준비도 차근차근 잘하겠다"며 담담히 말했다.

한국은 11일 4년 전 동메달의 색깔을 바꿀 그 '찰나의 타이밍'을 노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더 배트맨
- 2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3관 언차티드
- 4관 더 배트맨
- 5관 더 배트맨, 블랙라이트
- 6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9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7관 씨네케플: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더 무비: 월드 히어로즈 미션, 안테벨룸
- 8관 씨네케플: 극장판 추수회전 0, 블랙라이트,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더 무비: 월드 히어로즈 미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뮤지컬 앤Anne

일시: 2022.04.02.(토)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2.03.25.(금)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